상록탑

한글로 본 리더십

남미래
대학취재부 차장

> 소통을 통한 리더십이
> 성공적인 개혁을 이끈다

올해는 한글날이 569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해다. 한글날은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이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고 세종의 위대함을 마음에 새기는 중요한 날이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문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가 세계 각국에서 문맹퇴치사업에 가장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의 이름도 세종대왕상인 점만 보아도 한글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위대한 문자인 한글이 탄생하게 되기까지, 세종의 빛나는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 선조들은 말은 있었으나 이를 적을 글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은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차자 표기법을 이용해 표기했다.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기가 어려웠고 한문과 우리말에도 차이가 있어 일반 백성들이 글을 익히기 어려웠다. 이를 문제시 여긴 세종은 우리의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지배층은 한자가 기득권의 기반이었으므로, 쉬운 훈민정음 창제에 큰 반발을 일으켰다. 명분은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였다. 하지만 세종이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며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인 결과,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탄생할 수 있었다.

혹자들은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을 시켜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세종실록이나 훈민정음 해례의 정인지 서문만 찾아봐도 훈민정음 반포까지 세종의 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은 한밤중에 궁녀를 불러다 놓고 여러 소리를 내도록 시킨 다음, 입과 혀 그리고 목구멍의 모양을 살펴보는 등 솔선수범하여 훈민정음 창제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세종은 한글창제 기간 동안 28차례나 천문대를 방문하여 한글창제과정에서 천문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등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 집권시절, 임금이 신하와 국정을 협의하던 경연(經筵)이 활발했다. 세종은 경연을 통해 신하들을 불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적극적으로 신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종은 반대하는 학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성실하고 근면한 독서와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위해 신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탄생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 큰 개혁이었다. 백성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은 끊임없는 소통을 일궈냈다. 이로써, 많은 학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탄생할 수 있었다. 무엇인가를 고치고 개선하려는 의도가 좋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거부감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 소통없이 이루어진 개혁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세종이 보여주었던 소통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 때다.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반대 측을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성을 키우며, 열린 태도로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설

장애 인식 개선, 일상에서부터

“장애는 문화다”

본지가 지난 8월19일~8월29일 찾은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 대학의 장애 교육 철학이다. 이들은 장애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고, 장애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물심양면 힘쓴다. 미국 최초로 ‘장애학’을 개설해 운영하고, 장애에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는 모토를 지닌 전담 센터가 장애 학생의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라큐스대 캠퍼스 곳곳에는 점자 안내판, V자 모양 문고리, 낮은 위치의 옷걸이 등 장애학생을 위한 배려가 가득하다.

해외취재 이후, 본지는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 봤다. 최근 들어 심심찮게 쓰이는 말 중 하나가 ‘결정 장애’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부터 어떤 직장에 지원서를 내야 할지처럼 중대한 일까지, 우리는 ‘아, 나 결정장애인가봐’라는 말을 달고 산다.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일상 언어지만 이는 사실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경솔한 표현이다.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언어적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언어폭력뿐만이 아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대학 내 장애 학생 및 교직원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실제 본지 1454호(2013년 6월 3일자) ‘〈기자가 휠체어 타고 장애 체험해보니〉 “경사로 없는 건물 앞에서 절로 한숨이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무거운 출입문, 경사로 없는 건물 등 교내 곳곳의 환경은 장애 학생 및 교직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장애 학생이 전 층을 운행하는 ECC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10분씩 기다려야 했다. 일반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기 때문이다.

본교는 2008년, 2011년, 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장애학생 지원 학칙 제정,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장애학생 전용 휴게시설 구비,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등과 같은 노력의 결과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사소한 일상 언어에서부터 캠퍼스 생활환경 개선까지 장애 학생 및 교직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라큐스대가 장애를 문화로 인식하고, ‘멋있다’, ‘화려하다’, ‘수수하다’ 등과 같은 인간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 미국 제1의 장애지원 학교로 거듭났듯, 본교 구성원 또한 일상 속에서 장애를 고민하고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나가야 할 때다.

학생 칼럼

자뻑의 현명한 계보

공재원
불어불문학 전공
석사과정

> 자신의 기준으로
> 남을 폄하하지 말길

“근자감 장난 아니다.”

이 말을 누군가 처음 쓰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말의 대상이 내가 아닌데도 움찔했던 기억이 난다. 사람을 괜히 움츠러들게 하는 말이다. ‘근자감’이라 함은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준말인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보이면 어쩌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단하게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는 말이다. 그 ‘근거 없음’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근자감이라는 말을 쓰는 당사자의 근자감도 장난 아닌 것이다.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정도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너무 자신감으로 무장해있으니 수그리고 있으라는 말인데, 이 논리는 정말 주관적이고 폭력적이다.

물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주변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호응을 해줄 만한 상황인지 판단한 후에 그런 말을 내뱉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그 말의 폭력성이 두드러지기 보다는 모두의 지지를 받는 편이다. 하지만 이 말에는 분명 억울한 논리가 숨어있다. ‘근거도 없이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서러운 데가 있다. 사회의 기준에 따라 ‘루저’로 진단되는 것도 서러운데, 자신감조차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 사회는 정말 칭찬에 박하다. 그리고 알아서 자기 스스로를 예뻐하는 사람들까지 처단하고야 마는 것이다.

자기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계보에서 근자감보다 위에 있는 것이 ‘공주병·왕자병’인데, 이 때 부터 이미 자기애는 하나의 ‘병’으로 진단받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의 유행은 정말 짧게 끝났다. 그리고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박해의 계보는 아주 길다. 하지만 그 박해의 계보가 긴만큼, 그 박해 대상인 ‘자뻑’의 계보 또한 아주 길다는 것은 희망적으로 보인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 자신감을 지겨워하고 질투하며 깎아내리려고 해도 나만의 자신감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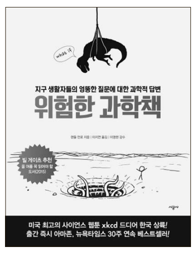
사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그 자신감이 자만으로까지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 잘났다’ 하는 태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자뻑은 그냥 눈감아줘도 되지 않을까 싶다.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다.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다. 굳이 현실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네 주제를 알라’고 밑으로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칭찬의 힘은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들은 그 저력과 뚝심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만평

박소라 만평기자 parksola94@gmail.com

금주의 책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지음. 서울: 시공사, 2015.

전직 NASA 로봇공학자이자 과학웹툰 'xkcd'의 작가로 활동하는 저자가 블로그를 통해 받은 질문에 답한 글을 모아 펴낸 책입니다. 저자는 궁금했지만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는 기상천외한 질문에 유머와 과학으로 답을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달을 향해 레이저포인터를 쏘면 어떻게 될까?”와 같이 특이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읽다보면, 과학에 흥미진진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호기심과 상상으로만 바라보았던 문제에 논리성을 부여하고 추론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이 과학을 보다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끼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홀 인기도서 / 5층 일반자료실 500 M926w한]

여론광장

잠시 뒤돌아 초심을 곱씹다

추석 연휴를 맞아 찾은 시골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가졌다. 햇살을 맞으면서, 쉴 새 없이 달려온 날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요량으로 평상 위로 몸을 뉘었는데, 갑자기 일 년 반전쯤 똑같이 평상에 누워 미래를 그리던 내가 기억났다. 되돌아보니 그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너무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참으로 갑작스럽게, 불과 1, 2년 전과 너무 달라진 지금의 나를 발견하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뒤돌아보게 되었다.

그 때의 나는 대학 합격 후 꿈에 부풀어 있었다. 홀로 상경해 혼자 잠자리를 꾸리면서 많은 것들을 꿈꾸었다. 지금 대부분의 꿈들을 현실로 이뤄냈지만,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진 않다. 좋아서 시작했던 일들, 내 삶의 활력소이자 쉼터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날 속박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학점을 잘 받고, 원하는 동아리에 들고, 바랐던 취미생활까지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음에도, 항상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기분과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 공허하고 허전하단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내가 바라던 삶을 살고있는 게 맞을까?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원하던 일 자체는 맞는데 그걸 통해 이루길 원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희미해서이다. 1학년 첫 학기 때 내 마음가짐은 어땠을까. 내가 무얼 바라 이 많은 것들을 꾸역꾸역 해내고 있는 건지. 잊고 살았던 내 초심을 뒤돌아보았다.

그 때의 나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알았다. 자신감과 사교력이 부족했고 자존감이 낮았다. 겪어 본 세상은 너무 협소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내 세상을 넓히는 것이, 내가 해야할 일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다. 계속해서 자신감과 자존심을 지키고 높히는 것이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었다. 초심을 다시금 곱씹고 나니 마음가짐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 같았다. 항상 따라다니던 공허감이 조금은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혹시 정신 없이 살고 있거나 힘 없이 지내고 있다면 한 번쯤 쉬면서 출발점을 돌아보는 게 어떤가.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첫 발을 내딛을 때와는 어떻게 다른지, 혹여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다면, 초심을 되새기고 용기를 내보라. 잊고, 잃었던 다짐과 열정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박서영(국문·14)

0902~1001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아리랑 : 趙廷來 大河小說 제2판	조정래	해냄	2004
2	갈릴레이의 생애 : 진실을 아는 자의 갈등과 선택	Brecht, Bertolt Durrenmatt, Friedrich Kipphardt, Heinar 차경아	두레	2001
3	버림 받은 황비 : 정유나 장편소설	정유나	D&C books : 디앤씨미디어	2013-2015
4	유토피아 : 존재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나라	More, Thomas , Sir, Saint	돋을새김	2006
5	한국생활사박물관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사계절	2000-2004
6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 되풀이되는 연구 부정과 ‘자기검증’이라는 환상	Broad, William J	미래M&B	2007
7	(New) 서강한국어	김성희	하우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8	정글만리 : 조정래 장편소설	조정래	해냄출판사	2013
9	모래 사나이 : E. T. A. 호프만 단편선	Hoffmann, Ernst Theodor Amadeus	문학과지성사	2001
10	회계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 중급회계 . 상 2판	한종수	리스크컨설팅코리아	2013